

보 도 자 료



◆ 2024. 9. 27. (금) 배포

◆ 총 2쪽 (본문 2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강민구 홍보실장

☎ 032-770-8631
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

☎ 032-770-8637

“영월로 찾아가는 청년 인재규의 꿈”

극지연·서울대 제19회 인재규 학술캠프 공동개최... “지역 학생들 위해 개편”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서울대학교와 27일 강원도 영월고등학교에서 제19회 인재규 학술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는 “영월로 찾아가는 청년 인재규의 꿈”을 주제로, 과학자의 꿈을 품은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시대에 故인재규 대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되었다.
- 인재규 대원은 2003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제17차 월동연구대원으로 근무 중, 조난사고로 실종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해상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인물이다.
- 서울대학교는 사고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<인재규 학술대회>를 개최했으며, 극지연구소도 2015년부터 참여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.
- 양 기관은 인재규 대원의 숭고한 뜻과 과학자로서 열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, 기존 학술대회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과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다. <인재규 학술캠프>는 그 첫걸음으로, 인재규 대원의 모교인 영월고에서 개최된다.

- 행사는 전재규 대원의 부친과 친구, 동료 등이 참석하는 추모식, 서울대학교 최덕근 명예교수, 극지연구소 김정환 박사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한다. 강연 중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.
- 영월고, 서울대 학생들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. 이번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전재규 대원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, 극지와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불의의 사고 후 20년 동안 남극은 기후변화로 많이 변했지만, 고 전재규 의사를 기리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. 이번 행사가 그가 남긴 희생과 과학자 정신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